

팬데믹 시대, 잘 계십니까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나도 잘 지냅니다'전은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기획이다. 유지원 작 '노동의 가치'(왼쪽)와 윤소연 작가의 작품.

'나도 잘 지냅니다'

광주시립미술관, 12월5일까지 '민주인권평화전' 류성실·허산 등 8명 참여... 영상·설치 57점 전시

'팬데믹 시대를 건너는 당신에게 보내는 안부 편지.' 작가는 집 안에 쌓여가는 박스를 그리고 그 안에 푸른 바다를 담았다. 소풍 봉투 속에 들어있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은 눈부시다. 전시장에서 관람객을 만나는 게 불가능해지자 아예 차량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재로 한 작품을 래핑한 후 관람객을 찾아나선 또 다른 작가의 여정은 흥미롭다.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 역설적으로 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풀어놓는 작가의 유튜브 방송은 유쾌하게 그치지 않았다. 폐지와 고품을 가득 실은 리어카는 전시장에 위태롭게 서 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에서 열리고 있는 '2021 민주인권평화전-나도 잘 지냅니다'(12월5일까지)전은 코로나 19로 새롭게 돌아보게 된 일상에 대한 전시다. 개인과 사회 공동체에 안부를 묻고 서로 위로하며 연대를 꿈꾸는 기획이기도 하다.

'나도 잘 지냅니다'라는 문구에는 나의 안부 이전에 타인에 대한 염려가 담겨 있다. 로마인들이 편지를 쓸 때 첫 인사말로 자주 사용하는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는데요. 나도 잘 지냅니다(Si vales bene est, ego valeo)"라는 문장에서 따온 글귀로 고품과 소의 속에서도 '당신'을 배려하며,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자는 마음으로 정한 주제다.

5·18기념재단(이사장 정동년)과 준비한 전시에는 8명의

작가가 참여해 영상, 설치, 회화 등 57점을 선보이고 있다. 첫 번째 섹션 '아직과 이미 사이'는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 팬데믹으로 인해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을 다루는 작품들이다. 조금은 딱딱한 주제지만 작가들이 풀어놓은 방식은 재미있고 흥미롭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고개를 갇혀서 된다. 전시실을 받치고 있는 흰 기둥은 기울어져 있고, 전시 벽면을 뚫고 들어왔던 작품은 기이하다. 완전해야 할 공간이 불안정한 공간으로 전환됨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평등 속의 불평등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지난해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을 수상해 화제가 됐던 류성실의 영상 작품 'BJ 체리장'은 기이한 분장을 한 작가가 직접 출연해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B급 블랙 코미디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준다. 일등시민권을 얻는 방법, 한국에 북한발 핵 미사일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진행되는 실시간 방송을 소재로 한 영상 작품은 시종일관 웃음을 터뜨리게 한다. 가짜 뉴스나 떠도는 여론에 흔들리는 도시민들의 모습과 인터넷의 이중적 성격을 통찰력 있게 비판하는 작품이다.

이재형 작가의 작품 'Face of City_Gwangju'의 대형 화면에 등장하는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갖 텍스트가 적혀 있다. 광주 지역의 감성을 얼굴 표정으로 표현하는 인터랙티브 작품으로 광주 사람들의 실시간 SNS 주요 키워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텍스트로 이루어진 표정에 반영해 구현한 작품이다.

전시장에 놓인 리어카는 유지원 작가의 작품 '노동의 가치'다. 광주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의 노동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나타나는 표면적인 노동의 양과 무게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노동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부서진 건축 현장의 모습을 캔버스에 담아내는 김효숙 작가는 작품 속에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파편 형태의 파이프, 철망, 콘크리트 잔해 등을 통해 사회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불안정한 현대인을 묘사한다.

두 번째 섹션 '그림에도 불구하고'에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만날 수 있다. 팬데믹으로 변화된 일상의 모습에 관심을 갖는 윤소연 작가는 마시다 둔 커피 잔, 택배 박스 등과 삶의 풍경을 결합한 '파란 하늘을 골랐어' 등의 작품을 통해 집콕 생활을 윤택하게 표현했다.

최선 작가의 '코로나 위장-움직이는 매개자(도큐멘트)'작품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변형해 만든 이미지를 차에 장착하고 직접 관람객을 찾아 전국을 다니는 과정을 찍은 영상이며 10m에 이르는 대작 '나비'는 관람객들이 입으로 불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밖에 최성임 작가는 비닐, 양파망, 빵 끈 등 우리 삶에 친숙한 소재를 통해 낯선 풍경을 연출한다.



최성임 작 '일식(부분)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가을을 물들이다'



고희자 작 '꽃으로부터'

황토회전, 19일까지 진한미술관

지난 1969년 목포 미로화랑에서 '황토회'전이 열렸다. 오지호·배동신·김인규·최용갑·김수호·강동문 등 정장한 6명의 작가가 회원으로 참여한 '황토회'의 창립전이었다. 전라도 땅을 상징하는 '황토'를 그룹 이름으로 정한 작가들은 대회 전시회를 통해 미술 애호가들을 만났다.

제52회 황토회(회장 고희자 송원대 교수)전이 오는 19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진한미술관에서 열린다.

'가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김기수·김용근·박석규·신동인·김한성·김현섭·김재자·고희자·박일광 등 회원 20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에서는 각 작가가 자신만의 개성으로 풀어낸 다양한 가을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단풍잎을 입은 아름다운 한국 산하의 풍경이 화폭에 담겼고, 가을 하면 떠오르는 꽃과 나무도 전시됐다.

황토회는 정기 회원전 뿐 아니라 다양한 연합전을 통한 교류도 활발히 진행해왔다. 초창기부터 비구상 그룹 에보코와 연합전을 가진 이래 2002년까지 모두 8회의 연합전을 개최했고 대구 지역 대표적 구상 미술 그룹 '이상화'와도 공동 전시를 열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예술로 '작은 위로'



서기문 작 '아침햇살 2021'

'조형21' 회원전, 18일까지 미노갤러리

서양화 작가들의 모임 '조형21' 회원전이 오는 18일까지 광주 미노갤러리(동구 경양로 187)에서 열린다.

전남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들이 꾸린 '조형 21'은 지난 1992년 결성 후 남도예술회관에서 창립전을 가졌고 정기전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왔다. 잠시 주춤했던 '조형 21'은 지난 2019년부터 회원전을 재개, '광주 문화유산을 찾아서', '시간 속의 도시'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

올해 전시회 주제는 '작은 위로'다. 코로나 19로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예술로 위로를 전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한 전시로 작가들은 풍경, 정물, 인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전시작은 소품 위주로 구성, 관람객들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작가는 강미미·강선호·김미애·류미숙·류영도·서기문·신호재·오광섭·윤석문·윤병학·이금주·이정기·조성숙·주성범 등 32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친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전합니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피아트 도미니소년합창단, 15일 임동성당

cpbc광주가톨릭평화방송 피아트 도미니(FIAT DOMINI)소년합창단(사진)이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주교좌임동성당에서 '지친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평화와 선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제6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평화, 선, 믿음, 희망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평화의 기도'와 '기도', '제가 대령했나이다', '환상 속에서', '한 노래 있어', '은 세상이 환호하여라' 등을 부르며 천상의 하모니를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천주교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지금 코로나19로 성가를 부르는 기회가 제한돼 있지만 이런 힘든 시기에 피아

트 도미니 소년합창단의 정기 공연은 다시 성가를 통해 주님을 찾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10월 18일 창단한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피아트 도미니 소년합창단은 '주님 뜻대로'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합창단원들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두 30여명의 소년들로 구성돼 있으며, 백정빈 상임지휘자와 박지수 피아노 반주자, 천기연 음악코치가 단원들을 열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이터널스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이터널스
2관	이터널스
3관	베놈 2: 펫 데어 비 카니지
4관	이터널스
5관	이터널스
6관	이터널스, 보이스
9관	이터널스, 고장난 론

고장난 론, 애프터: 관계의 함정
용과 주근깨 공주, 침묵의 숲
극정판영구는 콧마라 거울! 나! 왕국과 영혼 내 명의왕님

7관 씨네케플
8관 씨네케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극단 제17회 정기공연
나의 살던 고향
일시 : 2021.11.25.(목)-27.(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11-2759

GAC특별기획공연
김수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11.28.(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